

##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 Relationships to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김 애 경\*  
Kim, Ae Kyung

###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3 6<sup>th</sup> and 8<sup>th</sup> grade students and their homeroom teach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 Pearson's, two-way ANOVA, and stepwis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self-esteem were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and negatively related to antisocial behavior. Depress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and positively related to antisocial behavior. The 8<sup>th</sup> graders had higher scores than 6<sup>th</sup> graders in antisocial behavior and lower levels of soci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Girls were higher in soci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lower in antisocial behavior than boys. Depression impacted social competence in girls,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s impacted social competence in boys. Grade,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ntisocial behavior in boys.

Key Words :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 의사소통(communication), 우울(depression)

---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I. 서 론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폭력, 반사회적 행동, 비행행동이 점점 비인간화, 흉폭화, 지연평화, 집단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행동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그 피해 또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집단따돌림(왕따)현상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피해도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달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현적인 행동문제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Dishion, Loeber, Stouthamer-Loeber, & Patterson, 1984; Hawkins, Herrenkohl, Farrington, Brewer, Catalano, & Harachi, 1998; Kazdin, 1997; Loeber & Dishion, 1983; Merrell & Gimpel, 1998; Renwick & Emler, 1991)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격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대안을 생성, 평가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며,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조망수용능력이나 공감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한다. 또한 이들은 도덕적 판단과 추리가 낮고 충동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낮고 적대적인 귀인성향을 갖는 등 대인간 인지적인 문제해결 기술 및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Dodge & Somberg, 1987; Kazdin, et al., 1987; White, et al., 1994). 또래관계에서도 친사회적이고 협동적인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있지만,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또래수용

도 낮아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고립되게 되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적 기술의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회적 기술부족으로 인해, 학습부진 및 조기 학업중퇴, 폭력, 알콜 및 약물남용, 우울, 자살 등 학교생활이후 성인기까지 심각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Loeber & Hay, 1997; Pentz, 1983; Pepler, King & Byrd, 1991).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Grossman 등(1997)은 초등학교 2, 3학년층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정이입, 충동통제, 분노조절의 사회적 기술 훈련인 'Second Step'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운동장이나 식당과 같은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신체적 공격행동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공격행동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함을 보고한 바 있다.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기술과의 부적연관성은 이제까지 주로 외국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밝혀지면서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에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및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연구나 노력이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이 사회적 유능성을 마땅히 측정할만한 도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유능성을 비교적 오래된 부모에 의한 평정도구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그 객관성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또한 외현적인 문제는 자신보다 외부관찰자가 더 정확히 평가하는

만면, 내면적 문제는 아동자신이 보다 정확히 평정한다는 견해(Achenbach, McConoughy & Howell, 1987)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나 학생의 보고보다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정자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최근, Merrell(1993)이 학교상황에서 관찰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 양자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School Social Behavior Scale : SSBS)를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시킨 바 있다.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는 학교에서 맺게 되는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적응을 강조하는데, 또래관련 적응은 자유놀이상황에서 일어나는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역동성을 말하며, 교사관련 적응은 학교 규칙과 같은 교수상황에서 교사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Merrell, 1993 : 3). 따라서 SSBS는 사회적 유능성을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그런데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는 지금까지 학습부진아 및 비영재아의 특성을 고학업성취자나 영재아와 변별하고 이를 비교설명하는데 국한함으로써(Merrell et al., 1992; Merrell & Gill, 1994),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를 부모자녀 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조명해보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했으며, 더욱이 국내의 경우에 SSBS를 사용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과 정적인 효과를 산출, 유지,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능력이며(Foster & Ritchey, 1979 : 626),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수용성 및 거부와

밀접히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유능성의 한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Merrell, 1993 : 2). 특히 아동후기와 청소년초기는 또래가 매우 중요한 타인으로 부각되는 시기로 또래집단에 소속,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냄에 따라 또래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상하게 된다.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인지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는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기초가 된다. 따라서 견고한 또래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생활을 통해 얻는 중요한 산물로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처럼 사회적 유능성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기술인 동시에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서 아동과 청소년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유아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그 관련변인으로서 애착, 귀인성향 및 정서인식능력,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여, 사회적 유능성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비행 혹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Clark과 Shields(199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기보고형 비행척도간의 관계를 본 결과, 자녀가 한쪽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갖는 것은 덜 심각한 비행행동에 참여하거나 비행참여율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민하영(1992)도 소년 재소자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가족의 응집 및 적응, 그리고 비행과의 관계를 본 결과, 비행과 부모와의 의사소통간에 부적 상관을 보여 자녀의 비행은 부모와의 소원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부족, 통제력 약화, 적절한 행동지도의 기회부족으로 보았다.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대화부족이 비행과 관련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자간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비행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Windle(1992)도 가족간에 지지적인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자녀에게 비행과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이 많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이제까지 연구는 고등학생, 교도소의 재소자,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김경화, 1990; 김윤희, 1990; 노성향, 1994; 민하영, 1992; 최태산·홍경자, 1997; Clark & Shields, 1997).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최근 경향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아동기에 이미 문제의 원인이 작동하고 파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Loeber et al., 1998), 어린 일반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중기 이후의 보다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의 진행을 막고 이를 조기에 예방하는데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해 갖고 있

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평가로, 청소년의 적응에 필수요인으로 지지되어 왔다(김희화, 김경연, 1999). 자아존중감은 우울이나 외현적인 행동문제와 부적의 관계가 있고(Kemis et al., 1991), 또한 우울과 행동문제는 상호공존하거나, 혹은 우울이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선행요인으로 봄으로써 우울과 행동문제간에 정적 관련성을 주장하여 왔다(김정원, 오경자, 1993; Puig-Antich, 1982).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우울과 비행, 자아존중감과 비행 등 두 가지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대다수 이어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들간의 관계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노성향, 1994; 심희옥, 1997)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이들 부적응 행동이 증가함을 밝히고 있지만, SSBS를 사용했던 Merrell(1993)의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문제행동이 학년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Merrell, 1993 : 21), 학년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에 대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여부를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동기는 부모자녀 관계가 강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또래와 학교와의 관계가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양상의 추이는 어떠한 것인지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 규명하고,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사회적 행동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을 남녀별로 탐색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사회적 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2. 사회적 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사회적 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학년, 성별, 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 중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해주는 변인의 순서에 성별간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북 J시와 I시에 소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과 그들의 담임교사이었다.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지역에서 2개의 초등학교와 남녀 중학교 각 1개 교씩 2개 중학교를 유의표집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12세부터 15세까지로 평균연령은 초등 6학년이 13.4세, 중학교 2학년이 15.3세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에 이와 유사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연구대상의 학년 및 성별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분포

학년	남아	여아	전체(%)
초등 6년	77(67.5%)	104(61.5%)	181( 64.0%)
중 2년	37(32.5%)	65(38.5%)	102( 36.0%)
전체	114(40.3%)	169(59.7%)	283(100.0%)

### 2. 연구도구

#### 1) 사회적 행동척도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errell(1993)의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SB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SBS는 미국의 유치원 아동부터 12학년까지 1858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도구로 학교장면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을 교사가 평가하는 검사이다. 이 도구는 총 65문항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사회적 유능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반사회적 행동)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유능성척도는 32문항으로 교육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능력을 나타내며, 대인관계기술(14문항), 자기관리기술(10문항), 학습활동기술(8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반사회적 행동척도는 33문항으로 친구로부터의 배척, 교사와 긴장된 관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행동을 반영하며 적대감-충동성(14문항), 반사회

성-공격성(10문항), 파괴성-강요(9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유능성척도의 문항 예는 '화가 났을 때 자기 기분을 잘 통제한다' 이고, 반사회적 행동척도의 예는 '학교기물을 부수거나 손상을 입힌다' 등이다. 교사는 아동에 대한 평소 관찰에 근거하여 각 문항에 대한 행동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는지에 따라 '그런 적이 없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사회적 유능성영역이 32점~160점, 반사회적 행동영역이 33점~165점의 분포를 보인다. 사회적 유능성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의미하지만,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변안은 본 연구자와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포대학원생에 의해 번역, 재번역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번안한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교수와 2명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토 의뢰하여 원문항의 내용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어를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대인관계기술 .84, 자기관리기술 .88, 학습활동기술 .81, 적대감-충동성 .91, 반사회성-공격성 .87, 파괴성-강요 .85이었으며 사회적 유능성 전체 .94, 반사회적 행동 전체 .95로 나타났다.

##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가족내의 의사소통에 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에서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모의 의사소통이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개방형 의사소통(10문항)과 폐쇄형

의사소통(10문항)의 두 영역을 측정한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폐쇄형 의사소통은 가족들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원만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부모와 모 각각 20~100점까지이며, 폐쇄형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아버지의 의사소통문항 .85, 어머니 의사소통 .88, 전체 문항 .86으로 나타났다.

## 3) 자아 존중감 척도

자기를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이 각 5개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4점 Likert식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 분포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4 이었다.

## 4) 아동 우울검사

Kovacs(1981)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한국형 아동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기분상태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다. 총 27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3개의 진술문이 있

으며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Cronbach  $\alpha$ 는 .84이었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조사는 담임교사가 각 학급의 학생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학년말인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8학급과 남녀 중학교 2학년 4학급으로 총 12학급에서 340명의 학생과 그들의 담임교사 12명을 짝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교사평정지인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는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문항에 대한 평정요령을 설명하고 각 문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다음, 담임교사가 각 학급에서 무선적으로 학생들을 선정하여 선택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 등 학생용 질문지는 선정된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담

임교사의 지도하에 실시한 후, 이를 모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결손가정이나 학생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가 서로 짝이 맞지 않거나 질문지 중 한 문장이라도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시켜 283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 연구문제에 따라 사회적 행동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검사의 신뢰도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를 구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사회적 행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과의 관계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유능성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

사소통정도는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부 :  $r=.20$ ,  $p<.001$ , 모 :  $r=.15$ ,  $p<.05$ , 부모 :  $r=.20$ ,  $p<.001$ )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부 :  $r=-.25$ ,  $p<.001$ , 모 :  $r=-.18$ ,  $p<.01$ , 부모 :  $r=-.24$ ,  $p<.001$ )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

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N=283)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r)	어머니(r)	부모(r)
대인관계기술	.19**	.12*	.17**
자기관리기술	.18**	.15*	.18**
학습활동기술	.19**	.18**	.21***
사회적 유능성 전체	.20***	.15*	.20***
적대감-충동성	-.19**	-.16**	-.20***
반사회성-공격성	-.27**	-.15*	-.24***
파괴성-강요	-.25***	-.21***	-.26***
반사회적 행동 전체	-.25***	-.18**	-.24***

\* p<.05    \*\* p<.01    \*\*\* p<.001

2)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및 우울성향과 사

회적 행동간의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과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 = .14, p < .05$ ),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17, p < .01$ ).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성향에서도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는 우울과 모두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으며( $r = -.21, p < .001$ ), 반사회적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r = .19, p < .01$ )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반면에 반사회적 행동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 행동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는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r = -.53, p < .001$ ),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N=28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자아존중감	---	-.46***	.12*	.13*	.15**	.14*	-.14*	-.16**	-.21***	-.17**
2 우울		---	-.20***	-.21***	-.18**	-.21***	.18**	.17**	.18**	.19**
3 대인관계기술			---	.81***	.75***	.95***	-.40***	-.33***	-.40***	-.40***
4 자기관리기술				---	.78***	.93***	-.53***	-.50***	-.50***	-.55***
5 학습활동기술					---	.89***	-.51***	-.53***	-.52***	-.56***
6 사회적 유능성 전체						---	-.50***	-.46***	-.50***	-.53***
7 적대감-충동성							---	.81***	.83***	.96***
8 반사회성-공격성								---	.78***	.92***
9 파괴성-강요									---	.92***
10 반사회적 행동 전체										---

\* p<.05    \*\* p<.01    \*\*\* p<.001



## 2. 사회적 행동과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학년 및 성별간 차이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사회적 행동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서 학년과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점수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아동 양육과 교육에 아버지들의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긴 하나, 자녀들은 여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더 활발하고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에서 보듯이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모 의사소통에서 학년과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부 의사소통에서는 학년의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초등 6학년은 중학교 2년보다, 또 여아는

<표 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초등 6 학년 (n=181)				중 2 학년 (n=102)			
	남(n=77)		여(n=104)		남(n=37)		여(n=65)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 유능성전체	104.99	21.84	111.53	23.46	95.11	14.04	106.75	15.81
반사회적 행동전체	64.79	21.66	63.28	23.38	87.49	20.66	58.55	16.01
부와 개방적 의사소통	72.73	10.99	69.99	12.41	60.78	15.21	67.32	14.91
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77.17	11.94	80.40	10.86	67.54	19.67	77.11	13.24

<표 5>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의 변량분석결과

변 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사회적 유능성전체	학년(A)	3302.93	1	3302.93	7.94**
	성별(B)	5087.94	1	5087.94	12.23***
	A x B	400.68	1	400.68	0.96
	오 차	116032.53	279	415.88	
반사회적 행동전체	학년(A)	4966.54	1	4966.54	11.20***
	성별(B)	14257.83	1	14257.83	32.16***
	A x B	11563.92	1	11563.92	26.08***
	오 차	123708.89	279	443.40	
부와 개방적 의사소통	학년(A)	3283.53	1	3283.53	19.25***
	성별(B)	222.39	1	222.39	1.30
	A x B	1323.52	1	1323.52	7.76**
	오 차	47590.75	279	170.58	
모와 개방적 의사소통	학년(A)	3018.57	1	3018.57	17.49***
	성별(B)	2837.62	1	2837.62	16.45***
	A x B	1239.21	1	1239.21	7.18**
	오 차	48137.28	279	172.54	

\* p<.05    \*\* p<.01    \*\*\* p<.001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과 모 의사소통점수에서 더 높았고,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중학교 2년은 초등 6년에 비해 부 의사소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반사회적 행동과 부와 모 의사소통에서는 학년 및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반사회적 행동에서 남아는 중 2년이 초등 6년보다 그 점수가 월등히 높은 반면, 여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 의사소통에서 여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와 모의 의사소통이 약간의 감소에 그쳤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부와 모 의사소통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 3.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

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 연구대상 전체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학년, 성별, 자

아존중감, 우울, 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식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우울이었고( $\beta = -.21, p < .001$ ), 그 다음이 아동의 성, 아버지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변량중 10%를 설명하였다. 특히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부 의사소통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고( $\beta = .25, p < .01$ ), 여아의 경우는 우울이 사회적 유능성을 의미있게 설명해주었다( $\beta = -.21, p < .01$ ). 한편,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전체적으로 부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beta = -.25, p < .001$ ), 그 다음이 아동의 성,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이 11% 설명되었다. 특히 남아는 학년( $\beta = .45, p < .001$ ), 부 의사소통( $\beta = -.16, p < .05$ ), 자아존중감( $\beta = -.15, p < .05$ )이 반사회적 행동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쳐 이들 변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26% 설명하였다.

<표 6>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모델적합도(F)	
전 체	사회적 유능성	우울	-.63	-.21***	.05	F= 9.59***	
		성별	-7.40	-.17**	.08		
		부 의사소통	.22	.14*	.10		
	반사회적 행동	부 의사소통	-.39	-.25***	.06		F=11.68***
		성별	8.46	.18**	.09		
		자아존중감	-.54	-.14*	.11		
남 아	사회적 유능성	부 의사소통	.37	.25**	.06	F= 7.65**	
	반사회적 행동	학년	11.35	.45***	.20	F=19.70***	
		부 의사소통	-.29	-.16*	.23		
		자아존중감	-.58	-.15*	.26		
여 아	사회적 유능성	우울	-.71	-.21**	.05	F= 7.88**	

성별 : 남=1, 여=0.

\* p<.05    \*\* p<.01    \*\*\* p<.001

## IV. 논의 및 결론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밝히는 일은 심각한 행동문제와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과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 사회적 행동의 두 영역인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조명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발달과 적응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비행감소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연구들(노성향, 1994; Clark & Shields, 1997)과 일치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든 사회적 관계형성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기초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개방적이고 감정이입적일 때,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공통적인 이해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여 행동문제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의 확산으로 부모와의 대화와 가족관계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는 요즘,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은 높고 반사회적 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의 인과적 관

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임을 밝힌 연구들(심희옥, 1997; Kaplan, 1976)을 지지한다. 아동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상태로 또래와 원만히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을 자기평가절하에 대한 방어적 반응처럼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벗어나고자 반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우울과의 관계에서도 우울성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이 많았는데, 이런 결과는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간에 부적인 관계를 밝힌 Cole (1990), Shah & Morgan(1996)과도 맥을 같이 한다. 높은 우울의 아동은 대인관계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친구들을 피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쉽고, 외로움, 고립감, 슬픔 등 정서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기회 박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이 낮게 되며,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애정, 격려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아직까지는 독립적 자아가 성숙되기 이전이므로 부모와 긴밀한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시기이나, 중학생은 자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자

울과 독립된 개체로서 부모와의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이고 덜 비판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여 또래집단에 동일시하고, 부모의 간섭과 권위에 반항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유능성에서의 학년차이는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사춘기 이후부터 부모 중 특히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급격히 줄면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중학교로 올라 가면서 반사회적 행동이 급증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 정서, 심리,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갈등, 반항심, 부정감이 일어남으로써 혼란스런 정체감위기를 맞게 되고,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줄어들든 틈을 타 비행또래와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Farrington, 1986). 특히 SSBS에 대한 미국의 결과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반사회적 행동이 더 높은 것은 우리학생들이 성적과 입사위주교육으로 인한 공부압력과 시험스트레스가 심각하여 많은 부적 생활경험과 함께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현실과 관련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정도에서의 성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의존도가 높고 표현적이어서 부모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친밀하고 개방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최근 일부 여아들의 행동문제가 증가추세에 있던 하나, 다수의 선행연구결과들과 일관되게(곽금주, 문은영, 1993; Elliott et al., 1994; Loebe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반사회적 행동이 높았는데, 이런 남녀간 성차이는 공격성의 수준차이라기보다 그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남아는 반사회적 공격을 외부로 직접적, 물리적, 신체적으로 표출

하려는 경향에 비해 여아는 간접적, 언어적, 심리적, 관계지향적 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현적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반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유능성도 남아보다 여아들이 더 발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Merrell (1993), Ramsey(1988)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아는 연령증가와 함께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 자기억제, 내면적인 민감성이나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남녀에 대한 사회적 기대 차이 및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은 중학교 남학생에게 더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따뜻한 관심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적 유능성을 예언해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남아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고, 여아는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행동과 놀이의 참여 및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최경순 (1993), MacDonald & Parke(1984)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어머니에 비해 양적으로는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이타주의와 관대함 등 긍정적 관계능력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 및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버지가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뿐만 아니라, 성역,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보고를 감안한다면, 자녀발달 및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아에게서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련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관계에 더 민감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더 지향하기 때문에, 여아의 우울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사회적 행동에서도 남이는 부의사소통, 학년, 자아존중감이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버지와 역기능적인 관계 및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가질 때, 자녀의 비행이 심각하다는 김경화(1990), 민하영(1991)의 연구와 비행청소년은 반사회적이며 감정이 입적이지 못한 적대적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나온다는 보고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아버지와 대화가 감소하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나쁜행동을 통제하고, 도덕성과 행동규범을 제시하는데 아버지가 제역할을 못함으로써 자녀들은 스스로 반사회적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개선에 그 동안 '잊혀진 양육자'로서 간과되었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 남학생들의 학원폭력 및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특정지역의 초·중학생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제한적이다. 또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근거해 자녀의 주관적 지각을 근거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봄으로써 의사소통에 부모의 지각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학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고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교적응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대상과 관련해 추후연구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관해 자녀와 부모의 지각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SSBS는 초·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도구로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여 부모자녀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간의 관계규명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SSBS의 요인구조를 검증하는 타당화 연구와 미국과의 비교문화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부적 관계에 비추어,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기지로 하는 한국형 사회적 유능성 향상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이 절실하며, 여기에 정부나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아의 긍정적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상담 및 중재프로그램이 요청되며, 남아의 사회적 행동에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애정, 격려를 통한 자아존중감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건강한 부모자녀관계형성을 위한 대화기술교육 및 상담개입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경화(199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오경자(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26-141.
- 김희화, 김경연(1999). 청소년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59-69.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태산, 홍경자(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11(2), 291-322.
- Achenbach, T. M., McCono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Clark, R. D., & Shields, G.(1997). Family communication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2, 81-92.
- Cole, D. A.(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422-429.
- Dishion, T. J.,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Patterson, G. R.(1984). Skill deficits and mal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37-54.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Elliott, D.S.(1994). Serious violent offenders: onset, developmental course, and termination. *Criminology*, 32, 1-21.
- Farrington, D. P. (1986). Age and Crime. In N. Morris & M. Tonry,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7, pp.189-250). University Chicago Press.
- Foster, S. L., & Ritchey, W. L.(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25-638.
- Grossman, D.C., Neckerman, H. J., Koepsell, T. D., Liu, P. Y., Asher, K. N., Beland, K., Frey, K., & Rivara, F. P.(1997). Effectivenes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amo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AMA*, 28; 277(20), 1605-1611.
- Guerra, N. G., & Slaby, R. G. (1990).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 2. Inter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69-277.
- Hawkins, J. D., Herrenkohl, T.,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 Harachi, T. W.(1998). A review of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pp. 106-146). Thousand Oaks, CA: Sage.

- Kazdin, A. E.(1997). Practitioner review :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161-178.
- Kazdin, A. E., Esveldt-Dawson, K., French, N.H., & Unis, A.S. (1987).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76-85.
- Kemis, M.H., Grannemann, B. D., & Mathis, L. C.(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81-84.
- Kovacs, M.(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oeber, R., & Dishion, T.(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eber, R., & Hay, D. 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errell, K. W.(1993). *Test Manual for the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 Brandon, VT :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 Merrell, K. W. & Gill, S. J.(1994). Using teacher ratings of school behavior to differentiate gifted from non-gifted students. *Roepers Review*, 16, 286-289.
- Merrell, K. W. & Gimpel, G. A.(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NJ : LEA.
- Merrell, K. W., Merz, J. R., Johnson, E. R., & Ring, E. N. (1992). Social competence of mildly handicapped and low-achieving students : A comparative study. *School Psychology Review*, 21, 125-137.
- Pentz, M.A.(1983). Prevention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through social skill development. *NIDA Research Monograph Series*, 47, 195-232.
- Pepler, D. J., King, G., & Byrd, W. (1991). A social-cognitively based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for aggressive children.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361-379). Hillsdale, NJ : Erlbaum.
- Puig-Antich, J.(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Ramsey, G. (1988). Social skills and peer status. *Merrill -Palmer Quarterly*, 34, 185-202.
- Renwick, S.,& Emler, N.(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s deficits and juvenile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61-7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h, F.,& Morgan, S. B.,(1996). Teachers' ratings of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with high versus low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4), 337-349.
- White,J.L., Moffitt, T.E., Caspi, A., Bartusch, D.J., Needles, D.J., & Stouthamer-Loeber, M.(1994).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92-205.
- Windle, M.(1992).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 interrel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1), 1-21.